

o 주제: 조선후기 (효종-숙종때) 북벌론의 전개와 한중관계에 미친 영향

이 주제를 택한 이유

- o 조선 후기(병자호란이후) 한중관계의 전개가 갈등적이었는가, 협력적이었는가?
- o 중국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딜레마: 관념적으로는 청에 대한 복수 vs 현실적으로 조선 국력의 취약성
 - 당시 조선이 처한 외교안보 국방정책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
 - 조선은 중국(청)에 대해 'No'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?
 - 과연 누구를 위한 북벌인가? : 왕, 신료, 사대부의 명분 vs 병자호란의 피해를 입고 청에 끌려간 일반 백성들의 원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?

o 북벌론에 대한 접근

- 1) 조청관계 뿐만 아니라 조일관계, 청-몽골관계 등 동아시아 전반의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
 - 명과 청의 조선에 대한 정책의 비교: 정벌, 기미, 유화, 동맹의 가능성
 - 청에 정치적 복속에 대한 대가 및 유지비용 : 전통적인 조공책봉, 연행사절(경제적 측면) + 혼인(의순공주), 인질과 인적, 물적 공납
- 2) 조선 국내정치적으로 왕권 대 신권의 대립, 협력 관계 / 집권세력간의 정치권력(군사력) 장악을 위한 명분의 측면
 - 효종 대 송시열 : 명분에는 공감, 현실에는 차이
 - 숙종 대 윤휴 등 북벌론자, 이후 반대론자들의 정치 역학의 변동
- 3) 조선 군주(효종 등)의 개인적 리더십 및 심양 인질 경험의 반영

o 명분, 이데올로기로서 북벌론

- 재조지은, 명에 대한 인식과 청에 대한 평가
- 북벌론에서 북학론으로의 전환 계기
- 명의 원수를 대신 갚음 → 만주 등 고토지역의 회복 의식으로 논리적 확대?

o 현실로서 북벌 준비와 여건

- 김자점의 밀고 등 북벌론을 전해들은 청의 반응 : 알고도 모른척 하였는가? 아니면 다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벌할 여력이 없었는가? 아니면 다른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조선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는가?
- 현실적으로 국방력 강화가 안되는 상황하에서, 청의 지배권력이 안정된 후 조선에 유화적 태도를 취하면서 조선의 북벌론의 입지가 약화되었는가? 아니면 북벌을 위한 군사력, 재정 강화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왕권 또는 일부 신료의 정치권력 장악으로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가?